



3면

“지역화폐 국비지원액 복원을”

2023년 9월 27일 수요일(음 8월 13일) 제3356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추석 연휴를 앞둔 26일 전북도청 어린이집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박 터리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 ‘전주페스타 2023’ 운영
비빔밥축제 · 태조어진 봉안
조선팝 페스티벌 · 예술난장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
14개 축제 내달 한달간 선봬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가 10월 한 달간 전주의 맛과 멋, 재미, 열정이 가득한 14개 축제를 맴ಡ 즐길 수 있는 축제 시즌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6일 오후 7시 전주종합경기장 옆 야구장 부지에서 개최되는 오프닝 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14개 축제를 만나볼 수 있는 전주축제시즌, 전주페스타 2023이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페스타 2023은 전주의 음식과 역사 한자, 소리, 한복, 예술·문화 등 전주만의 콘텐츠가 녹아있는 축제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전주비빔밥축제 △태조어진 봉인축제 △국제한지산업대전 △전주조선팝 페스티벌 △한복문화주간 △전주예술난장 등이 10월 한 달간 펼쳐진다.

먼저 전주페스타 2023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페스타 2023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서 개최되며, 전주의 맛과 멋, 열정을 주제로 한 16개 주요 콘텐츠가 선보인다.

이어 10월 7일 진행되는 ‘태조어진 봉인의례 재현행사’는 시청 노승광장에서 팔달로를 지나 경기전에 도착할 때까지 거대한 행렬이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동시에 울해로 27회째를 맞이한 ‘전주한지문화축제’가 ‘한지도’ 잊고 미래로 세계로를 주제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한지관에서 개최된다.

또한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주예술난장은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한복을

과 전라감영, 풍남문 광장 일대에서 한·중·일 3국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거리예술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진접수를 통해 진행되는 ‘디네임블링’은 오는 10월 7일에 전주의 한복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순백의 민족으로 열리고 매년 10월 셋째 주 전국에서 열리는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 까지 전주 한복문화창작소 일원에서도 한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기에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인 ‘전주문화재야행’이 오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라감영과 경기전 일원에서 펼쳐진다.

또한 13~15일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글로벌 공연콘텐츠 ‘조선팝’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조선팝 페스티벌’은 전주교대 옆 서학예술광장에서, 울해로 6회째인 ‘2023 전주독서대전’도 다시, 질문 곁으로’를 주제로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전주의 대표 문화유산인 태조어진과 경기전을 중심으로 열리는 ‘태조어진 봉인축제’가 10월 21일 한복마을과 경기전 일대에서 진행되며, 27일부터 29일까지 한복마을 내 문화시설에서는 ‘한복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가 준비돼 있다.

끝으로 세계 유일의 발효식품 특화 전시회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28일부터 30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 개최돼 10월 축제시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처음 선보이는 전주페스타 2023을 통해 전주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청출할 것”이라며 “전주에서만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축제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페스타 2023 개막식은 △전주 맛에 취하다 △전주 맛에 물들다 △전주 꽃 피다 등 특별한 주제 공연들로 구성되며, 초대형 멀티미디어쇼와 드론라이트쇼 등이 어우러진 공연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도, 용담댐 특별지원사업 국비 29억 확보

내년도 상수원관리 특별지원 진안·무주·장수 선정…용담댐 수질개선 등 도모

전북도는 202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에 진안군 등 3개 시군(4개 사업)이 모두 선정돼, 전년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국비 29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4년 특별지원 총사업비 34억 원 중 85%에 해당하며, 도내 상수원관리지역의 3개 시·군(진안·무주·장수) 모두가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북도와 시군의 협업으로 큰 성과를 얻게 된 결과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군에서 신청해 1차 전북도에서 사전검토 및 보완 후 수질개선 효과가 높거나 시·군 추진

의지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 제출한 것으로 2차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됐다.

금강수계 4개 광역시도에서 총 19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2차 본심사에 12개 사업이 발표해 8개 사업이 선정됐다. 전북은 4개 사업을 발표해 모두 선정되는 평가를 거뒀다.

진안군은 2개 사업으로 용담호사전 문화관 개선공사는 용담댐을 찾는 외부 관광객 유입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오수의 수질개선으로 수질 오염총량 목표수질 개선 등 개발과 보

전의 일석이조 효과에 기여하고,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공급사업은 76가구에 안정적인 연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은 유통망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용담댐 하류 수변구역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군은 친환경연료(IPG) 공급사업으로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지원토록 공모한 사업으로, 여가구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안정적인 연료

사용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담댐 단수 후 20여년 동안 (2003~2023년) 무주·진안·장수 3개 시·군에 특별지원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으로 금강수계기금 520억원이 지원됐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수질개선사업으로 3,230억원이 지원됐다. /김재훈 기자

**풍요로운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추석 연휴 관계로
10월 4일까지 신문 쉽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문화관광축제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스물다섯 번째

2023. 10. 5.(목) ~ 10. 9.(월)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2023 국제종자박람회는 김제지평선축제와 함께합니다.
10. 5.(목) ~ 10. 7.(토)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